광주은행 예비입찰 오늘 마감…6~7곳 참여 전망

광주·전남 상공인연합, 대구, 전북은행에 부산은행도 검토

전남도·광은노조 지분 참여 추진…연말께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은행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23일 예비입찰 마감을 앞두고 금융권과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촉구하며 인수를 준비해온 광주전남지역 자본이 광주은행을 품에 안을 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 서류를 23일 오후 5시 마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예비입찰 후 실사와 본입찰 등을 거치면 새 주인은 내년 연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유찰이 되더라도 우리은행과 묶어서 팔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예보가 대주주로 남고 현재처럼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이 운영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은행의 인수가는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하는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을 비롯해 DGB금융지주(대구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등 3곳은 광주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은 지난달 예금보험공사의 광주은행 실사 정보가 담긴 입찰안내서를 받고 매각 주관사에 정보이용료와 비밀유지확약서(CA)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경남은행과 함께 광주은행에 대한 인수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BS금융지주는 법률과 회계 등 인수를 위한 자문사와의 계약에 광주은행 인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나 JB금융지주와의 컨소시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 등 대형 시중은행도 광주은행 인수에 나설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외국계 자본의 입찰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전남도와 광주은행 노조도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인수전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거리다.

광주은행 노조도 지난 16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광주은행 우리사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민영화를 앞두고 예비입찰 참여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금융계에서는 전남도와 광주은행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의 지분 참여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잠재적 후보군 가운데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을 비롯한 지방은행 금융지주, 중앙 대형 금융지주 등 적어도 6~7곳이 예비입찰에 참여해 광주은행 인수를 두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은행 매각 절차는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인수 후보자 선정, 예비 심사, 최종입찰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확인실사 및 협상진행, 계약체결, 금융위원회 인가 등으로 진행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시 8월 누계 수출액 사상 첫 100억달러 돌파

광주시의 8월말 누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광주시의 올해 수출 달성 목표치인 160억 달러의 65%에 이르는 것이다. 광주시는 수출액이 감소하는 7~8월 하계휴가 등 계절적인 요인을 딛고 달성한 누계액인 만큼 남은 기간동안 160억 달러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의 역대 수출액은 2009년 89억 달러에서 2010년 116억 달러, 2012년 141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민선 5기 3년동안 52억 달러(58%)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중이다.

한편 8월 광주·전남지역의 무역수지는 7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17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년 같은달보다 14% 증가한 49억3000만달러, 수입은 2% 감소한 42억달러로 7억3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한 12억1000만달러, 수입은 3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 8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7억1000만달러, 수입은 38억1000만달러로 무역수지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백화점들 추석장사 잘했다

실속형 중저가 선물 인기…매출 7~11% 늘어

실속형 중저가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며 광주 지역 백화점들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7~11%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22일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2013 추석 맞이 기프트 세트 판매 행사'를 진행한 결과 명절 선물세트의 매출이 전년 추석 세일기간 대비 약 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한우세트 57%, 잣·호두세트 31%, 과일세트 23%, 와인세트 17%, 건강식품 세트 13% 가량 신장하는 등 매출 호조를 이끌었다.

반면 수산물 관련 선물세트의 경우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굴비세트 -14%, 갈치·전복세트 -32% 등 매출이 줄어들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 18일까지 전년 명절 동기간 대비 약 11%의 전체 세트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속형 중저가 선물세트가 지난해보다 60~70% 이상 판매량을 차지하면서 신장세를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과세트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사과·배 실속 혼합세트 구매율이 높았으며 건강식품 세트의 경우도 저렴하고 먹기 쉬운 홍삼 등의 실속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트랜드가 반영돼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전통시장 찾은 기아차 지난 18일 기아자동차 추석맞이 판촉활동에 참가한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서경석 본부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기아차 광주공장 조장협의회 정상 회장(〃 첫번째)이 양동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아차 알리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올 개인회생 신청 10만명 넘을 듯

7월까지 6만1446명…작년보다 16% 늘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두 자릿수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843명)보다 8603명(16.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2년 연속 늘었다.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의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2004년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 회생제는 첫해 신청자가 9070명이었으며 2005년 4만8541명, 2006년 5만6155명으로 늘다가 2007년 5만1416명, 2008년 4만7874명 등으로 줄고서 2009년에는 5만4605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 가운데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은 '쏠림'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을 관할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 협약을 우선 확대해 사전상담을 활성화하되 장기적으로 통합도산법에 사전상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이르면 연말부터 만19세도 주택청약 가능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도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금호산업 회생작업 탄력

공정위, 구조조정안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금호산업의 기업회생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 출자전환(채권을 자본으로 전환)은 공정거래법상 대물변제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기촉법)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가 이번에 내린 유권해석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업어음 790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상호출자 금지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금호산업의 회생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경영 일선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전남 16개업체 추석 하도급대금 2143억 조기지급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2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16개 원사업자가 1811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2143억원의 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달 9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도급 대금 앞당겨 주기 운동'을 벌인 결과다.

그동안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역의 1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로또복권 (제56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4	19	25	26	27	34	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934,801,143	7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70,539,625	32
3	5개 숫자 일치	1,368,871	1,649
4	4개 숫자 일치	50,000	83,100
5	3개 숫자 일치	5,000	1,358,618